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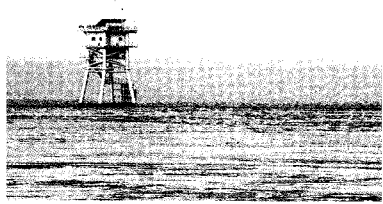
동북아의 중심, 새로운 명품단지로 태어날 새만금산업단지

지난 8월 28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가력배수갑문 외측 1.5km 해상에 건설된 관측탑의 준공식이 있었다. 기상 및 해양환경 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자동으로 관측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력 해상관측탑은 갑문을 통해 새만금 호와 유통되는 해수 특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물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관측탑을 보니, 새만금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졌다.

새만금종합실천계획 수립방향 결정

○●● 1991년부터 18년을 이어오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 그동안 왈가왈부 말도 많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새만금을 농지가 아닌 다목적 복합산업용지로 개발한다는 기본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23일 보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서는 개발방향을 기존 농지개발 위주에서 다목적 복합용지 개발위주로 전환하고, 8개 용도로 내부 토지를 구분하여 용지별로 테마를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환경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였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명품 복합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가력 해상관측탑>

농지 비율 줄이고 다목적 개발에 투자

○●● 종합실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의 농지 비율은 기존 70%에서 30%로 줄었다. 대신 2만 8300ha에 달하는 전체 토지를 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환경·생태,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농업, 도시 등 8개 용지로 나눴다. 다목적 개발을 위한 투자에 더 힘을 쏟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다.

특히 새만금 면적의 23.8%(6730ha)인 중심지역에는 명품 복합도시가 들어설 계획인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관광·레저, 국제업무 등에 주로 활용될 계획이라 한다. 특히 복합도시의 디자인으로 3가지 틀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방사형(Sha-Ring) 구조와 보름달(Full Moon) 구조, 삼각주(Delta) 구조가 그것이다. 방사형 구조는 중앙부에 호수가 조성되고 그 둘레에 3개의 도시가 배치된다. 보름달 구조는 FDI산업, 국제업무를 핵심기능으로 하는 중앙부와 관광레저기능을 담당하는 남부지구로 구분



Sha-Ring



Full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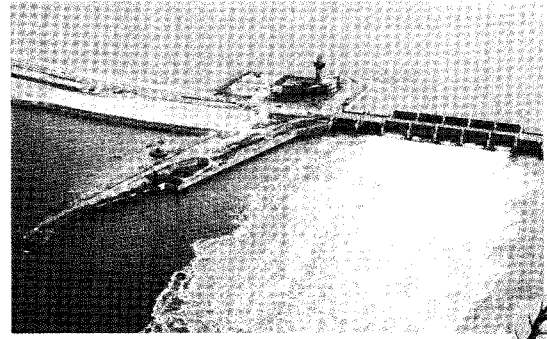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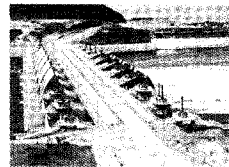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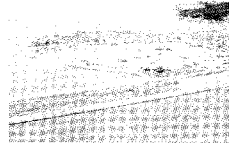
되며, 삼각주 구조는 수면 위의 섬들이 삼각형 군락을 형성하는 모양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올해 안에 확정해 실전에 옮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암스테르담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을 시찰하며 여러 나라의 사례를 꼼꼼히 수집했다고 하니, 어떤 모양을 택하더라도 매력 있는 명품 복합도시로 자리매김 하리라 생각된다.



Delta

물의 도시 새만금의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

○●● 새만금 바다의 숨통이라는 가력배수갑문과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니 그동안 환경 단체들이 왜 그리도 반대를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간다. 아름다운 바다와 갯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으리라. 하지만 정부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을 터. 그래서 나온 방침이 '물의 도시'로서의 새만금 특성을 살리기 위한 수질 개선 대책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농업용수인 4급수 수준이 아니라 뱃놀이가 가능한 3급수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며, 수질확보대책과 생태환경용지의 주관기관을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조정하였고, 만경·동진강 등 상류지역 및 새만금 내 수질확보 노력과 함께 내부토지개발에 녹색 교통체계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 자원순환시스템 등 저탄소·녹색성장 개념을 최우선 적용할 것이라 한다. 또한 동양 최대 새만금습지공원, 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라니 본래의 모습과는 또 다른 자연이 탄생할 모습을 상상해보니 새만금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된다.



세계 핵융합 연구개발의 허브를 꿈꾸며...

○●●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새만금단지에 핵융합 및 플라즈마 파생기술 상용화 단지를 조성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주도하며, 향후 핵융합실증플랜트(DEMO) 설계 및 개발에 필요한 관련 R&D 및 실증시설의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발판으로 2008년 전라북도, 군산시와 '플라즈마 융·복합기술 개발사업'의 추진을 합의한 바 있으며, 2009년 9월에는 '플라즈마 연구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동 기관과 공동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친환경 녹색성장 단지인 새만금 지역을 무한정정 녹색 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의 중심지로 삼아 국내는 물론 세계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글로벌 새만금을 위한 새로운 브랜드명과 CI 제작, 새만금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세계로 뻗어갈 새만금과 함께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개발 기술이 세계로 뻗어갈 날을 기대해본다. NFRl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5대 선도사업

○●● 정부는 새만금이 워낙 방대한 면적이라 그 특성상 일괄매립 및 투자가 어려워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먼저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당장 추진할 5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였다. 5대 선도사업으로는 명품 복합도시 및 산업용지 개발, 방조제의 관광명소화, 매립토(土) 조달 사업, '물막이 둑(방수제)' 조기 착공, 만경강·동진강 하천종합정비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서 고군산군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 공사를 올해 안으로 착공하며, 농업용지 구간을 중심으로 한 물막이 둑 공사 역시 연내 시작한다. 만경강·동진강 권역의 137km 구간에 대한 하천 정비는 2011년부터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